

제72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6월 7일)

## 안전한 소장품 포장과 보관

박진우, 역사의 길 월랑선사탑비 앞 18:00~18:30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수장고에서 전시실까지 또는 지방이나 외국의 어느 박물관까지 수 천 km를 옮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품의 안전이며, 크고 작은 충격으로부터 소장품을 보호하기 위해 ‘포장’을 합니다.

포장할 때 중요한 점은 재질, 모양, 상태가 각각인 소장품의 특성을 살려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모양을 만들어 혹시 있을지 모를 충격의 영향을 분산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포장 재료와 방법은 박물관이나 나라[國家]별로 조금씩 다르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솜포대기(솜을 안에 넣어 만든 포대기)로 소장품을 감싸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폴리에틸렌 폼을 소장품의 모양처럼 오려내고 그 안에 소장품을 넣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금속이나 종이 등 소장품의 재질에 따라 포장 재료와 방법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지 않는 소장품들은 ‘수장고收藏庫’라는 곳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수장고는 소장품의 재질材質별로 보관하기 위해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 최적의 온도와 습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고, 자외선을 차단한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장고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으며 많은 보안 장치들을 거쳐야 하는 등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장고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장고 모습을 보여주는 ‘관람형수장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72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6월 7일)

##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

이진민,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이번 특별전시는 한국 고대의 장송의례에 사용된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를 다룹니다. 인물, 동물, 사물을 본떠 만들거나 장식하여 무덤 속에 넣은 제의용 그릇입니다. 고대의 장송의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에도 현세의 삶이 이어진다는 계세사상繼世思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형토기는 동물이나 사물의 모습을 띄고 있으며 때때로 인물이 함께 표현되었습니다. 동물모양은 새, 말, 사슴 등 실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의 동물도 있습니다. 대부분 몸통이 비어있고 술과 같은 액체를 담거나 따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부는 최근 발굴되어 2022년 보물로 지정된 함안 말이산 45호 무덤의 일괄품을 시작으로 총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 말, 신발, 집 등 다양한 모양의 상형토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형토기가 형상을 본떠 만든 토기라면 토우장식 토기는 그러한 장식을 붙인 토기입니다. 지금까지 토우는 대부분 떨어진 개개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굽다리 접시의 뚜껑이나 긴목 항아리의 목 부분에 붙여 하나의 장면을 이루던 것들이었습니다. 상형토기와 마찬가지로 떠나는 이를 위해 만들어 무덤에 넣은 그릇이기에 그러한 장면에는 당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2부에서는 ‘헤어짐의 축제’, ‘함께 한 모든 순간’, ‘완성된 한편의 이야기’라는 세 가지의 주제에 따라 뚜껑에 장식된 토우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림1. 새모양 토기



그림2. 경주 황남동 토우장식 토기\_인물



제72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6월 7일)

## 신비로운 범종(鍾)의 과학적 해석

허일권, 302호 금속공예실, 19:00~19:30

한국의 전통 종은 절에서 사용한 범종梵鍾에 의해 대표됩니다. 범종은 시간을 알리는 기능도 있지만 종소리에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을 느끼고 번뇌·사악邪惡에서의 구제를 기원 하는 등의 종교적 의의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범종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제작되었지만, 한국에서 제작된 동종은 중국이나 일본의 범종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頂上에는 용뉴龍鈕와 음통音筒이 있습니다. 종신의 상·하부에는 문양대文樣帶가 둘러지며, 상대 아래에는 사다리꼴의 연곽蓮廓이 네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신에는 넓은 공간을 남기고 그곳에 공양비천상供養飛天像과 당좌撞座를 대칭으로 배치하였으며 때로는 명문銘文이 새겨졌습니다.

이러한 종의 양식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제작되어 ‘한국종’이라는 학명으로 부를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세련된 외관과 더불어 고도의 주조鑄造 기술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공예품으로서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범종은 대부분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범종의 청동 합금 성분을 오랜 기간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주석의 함량이 비슷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종소리를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동이라는 금속의 과학적 원리를 살펴보면 주석 함량에 따라 강도強度(strength)\*와 경도硬度(hardness)\*\* , 연신율延伸率(elongation)\*\*\* 등의 성질이 변화합니다.

\*재료가 파괴되기까지의 변형저항 정도, \*\*재료의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정도, \*\*\*힘으로 잡아당겨 늘렸을 때 재료가 늘어나는 비율

맑은 종소리를 위해서는 범종을 쳤을 때 재질이 물러서 둔탁한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고, 또 반대로 너무 딱딱해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해서도 안됩니다. 한국 범종의 주석 함량은 대략 12~18% 내에 존재하는데, 이는 종을 울리기에 아주 적합한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금속공예실의 국보 천흥사天興寺 범종 앞에서 과학적 조사를 통해 밝혀진 종소리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청동이라는 금속의 합금 성분과 종소리의 연관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범종의 내부 공간에 따라 만들어지는 맥놀이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종의 아름다움과 함께 숨어있는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72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6월 7일)

## 15-16세기 분청사기 문화

이정인, 304호 분청사기 · 백자실 19:00~19:30

15-16세기 무렵 조선은 국가 체제의 정비와 함께 성리학적 유교 이념의 사회상이 정착되어간 시기로, 분청사기와 백자가 중심이 된 도자 문화 또한 당시 시행된 국가적 차원의 제도 아래에서 그 역할과 특징이 부각되었습니다.

분청사기는 14세기 후반 고려의 상감청자 영향으로 등장해 16세기 중엽까지 다채로운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분청사기는 나라의 재정 유지를 위한 세금인 공물貢物의 하나로서 왕실과 중앙 관청에서 쓰기 위해 전국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태조 원년(1392)에 시행된 공납제에 따라 지방의 토산물이었던 도자기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앙 관청과 도자기를 생산한 지방의 명칭, 나아가 제작한 장인의 이름, 각종 숫자까지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인 시행은 도자기를 생산한 전국의 도기소와 자기소에 대한 위치와 개수, 상·중·하로 분류된 품질 조사 등의 정보 수집으로 더욱 뒷받침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종 연간(1418~1450)에는 왕실의 전용 도자기로 쓸 만큼 우수한 백자가 제작되어 1467~1468년 무렵 수도인 한양 부근의 경기도 광주廣州에 나라가 직접 운영하는 관요官窯에서 전문적으로 백자가 생산되었습니다. 관요의 운영은 조선 전기 도자기 문화가 분청사기에서 백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어, 점차 전국의 도기소와 자기소뿐만 아니라 제작되던 분청사기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의 전통을 이은 상감 · 인화 기법이 공납에 적합하도록 규칙성과 편리성이 부각되면서 재질이나 장식 면에서 조선의 시대상을 담은 도자기로 변모했습니다. 나아가 백토를 바른 그릇 표면에 무늬를 음각하거나 주변을 파내어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조화 · 박지 기법이 시도되어 고려청자의 영향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청화백자나 철화백자와 같이 회화성을 살린 도자기가 유행해 철화 분청사기처럼 붓으로 무늬를 그리는 방식이 공유되기도 했다. 백자의 생산과 수요가 점차 주요해지자 분청사기는 백토를 붓으로 바르기만 하거나 백토물에 담가 백자에 가까운 분위기로 제작되며 점차 백자 문화에 흡수되었습니다.

이처럼 분청사기의 역사는 전국에서 조사된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와 공주시 계룡산 학봉리 가마터는 분청사기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백자 문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도자 생산 유적으로, 조선 전기의 도자 문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